

법 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원화되어있는 정신과 세계를 적정과 평화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선의 정신이고 한편 선서화로 표현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선의 목적이 참된 나를 깨닫는 데 있는 만큼 선묵은 붓을 잡는 사람에게는 구도의 길이 되고, 또 보는 사람에게는 욕심에 찬 마음을 비우고 선의 향기를 체험하는 또 하나의 방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눈으로만 감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으로 감동하고 삶의 지표로써 깊은 여운을 갖는 것이 선서화입니다.

창사 23주년을 맞은 법보신문이 오늘 수행자들의 구도 열정이 담긴 작품들을 모아 선서화전을 개최했습니다. 이 선서화전은 불교언론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독립언론사로서 정법의 등불을 환히 밝혀온 법보신문이 선서화의 깊은 의미를 사부대중과 함께 나누고, 또한 사옥 마련의 간곡한 뜻을 함께 담고 있다하니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이 뜻 깊은 선서화전이 사부대중의 공덕을 잇는 참다운 인연이기를 기원합니다.

인성적 삶에 희망을 제시하고 미래를 밝혀야 한다는 언론의 사명은 선서화의 의미와 닮아 있으니 이 점 또한 놓쳐서도 안되겠습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도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 항상 남아 있을 정론을 만들기 위해 진력을 다한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공을 넘어 선조들의 선서화에서 큰 감동이 오듯이, 오늘 쓴 기사 한 줄이 먼 훗날에 큰 감동으로 회자된다는 책임과 신념으로 항상 매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법보시가 으뜸가는 공덕이라 하셨으니 불교계 언론은 부처님의 지혜도 함께 전하는 법보시의 역할도 충실히 해야 합니다. 한국불교 곳곳의 수행정진과 포교, 사회활동의 현장을 독자들에게 생생히 전달하면서 전통문화의 중요성과 창달의 의미를 전달하는데도 언제나처럼 번뜩이는 재치와 필력을 한껏 발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불교계 내외의 다양한 현상에 대해 한번 더 정제하고자 했던 법보신문의 사려 깊음은 불교 발전에 큰 희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담아내듯 불교의 미래와 희망을 담아내는 언론이기를 바라며, 이룸처럼 불자들에게 법보로서 자리매김 하기 위해 항상 정진하는 자세를 당부드립니다.

법보신문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불교 발전과 중흥에 역할을 다하여 한국불교의 새 지평을 여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원합니다. 식지 않은 열의 속에서 마음과 힘을 다하고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여 불교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길잡이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라며, 이 자리를 통하여 새롭고 힘찬 도약의 발판이 이루어지기를 발원합니다.

불기2555년 10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